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격 | 월 | 간

2020년 7월 제 **11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ww.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조해봉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josephclinic@daum.net

“환자와의 접점에서 공감 위해 노력합니다” 본원 의무기록팀, 의무기록 완전 전산화추진 가속화



의무기록팀

Medical Records Office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환자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바로 2층 의무기록팀이다. 의무기록팀에는 한 때 ‘원무과’란 표지가 붙어있으면서 편의상 접수실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 얼마 전 의무기록팀이란 명칭으로 통일됐다.

본원 의무기록팀은 말 그대로 의무기록만을 보관하는 곳이 아닌, 환자 진료를 위한 접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관을 제외하면 진료를 위한 첫 만남이 이루어지

오는 8월 29일 개원 33주년을 맞는 본원은 개원 후 총 진료환자 수가 7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6월 19일 현재 등록환자 수는 3만1572명으로, 이 가운데 6730명의 의무기록이 보관돼 있다.

는 장소다.

윤은숙 의무기록팀장은 “단골 환자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과는 첫 대면을 하는 곳 이어서 늘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본원에 환자가 처음 방문하면 먼저 사회사업팀에서 환자가 처한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진료 대상자 목록에 올린다. 의무기록팀에서는 환자로 등록한 뒤 진료카드를 발급해 주고 환자의 의무기록지(진료기록지)인 이른바 ‘차트’도



111호
주요
소식



1

본원 의무기록팀 소개



4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6

쪽방촌 향기



7

병원 소식



8

봉사자 코너



어쩌다 일이 얹혀 먼저 온 환자가 늦게 진료를 받게 될 때가 있다. 이때 불같이 화를 내는 환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당시는 화가 덜 풀렸더라도 후에 좀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진 아래는 종이 의무기록지.

이때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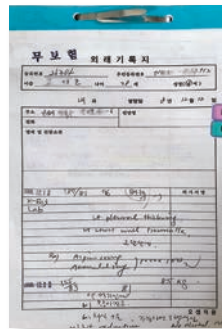
의무기록지란 개인의 건강상태와 진료 내역이 기록된 일종의 '진료이력서'라고 할 수 있다. 본원 신원식 의무원장은 “진료의사가 환자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동안 어떤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는지 등을 기록하게 되는데, 특히 본원과 같이 한 환자가 경우에 따라 여러 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 처방 등을 위해 자세한 의무기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 진료환자수 70만 명, 등록환자 수는 3만 여명

본원은 오는 8월 29일이면 개원 33주년을 맞는다. 개원 후 총 진료환자 수도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27번째 본원에 몸담아온 윤 팀장이 볼 때 그동안의 환자 유형이나 질병 양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환자 접수를 해오면서 비교해보면 질병 양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감기가 제일 많고, 고혈압이나 당뇨도 오래 전부터 환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신림동에서 영등포로 이전하면서부터는 환자 비율면에서 노숙인과 행려 환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신림동에서는 산동네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인들이 섞여있었으나, 영등포에서는 전형적인 도시 빈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영등포로 이전했을 당시에는 환자도 많아서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하루에 200~220명을 진료했다고 한다.



“‘노숙인과 행려환자 전문’ 1차병원에서 이제는 포괄적인 사회 기증민을 위한 병원으로 변화됐다고 할까요? 사회 변화에 따라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병원 문턱이 낮춰지고 변화돼 왔던 것 같습니다.”

6월 19일 현재 본원 등록환자 수는 3만1572명. 이 가운데 의무기록이 보관된 환자는 6,730명이다. 지난해에 10년 동안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를 퇴록시켜 실제 7000명 내외가 본원을 이용하는 환자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신규 환자는 한 달에 40명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래 의무기록은 10년 쯤 보관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있는 차트는 자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보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이 전산화된 뒤 잘못 삭제될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백업 개념도 있고요.”

의무기록팀에서 볼 때 본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10명 중 반 정도는 영등포 지역에 거주하고, 서너 명은 서울의 다른 지역 그리고 한 두 명 정도가 경기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으로 보면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이어 40대와 70대 순으로 많은 것 같아요.”

27년 전 선우 원장 ‘호출’로 합류

윤팀장은 신림동 시절인 1995년부터 본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초대 원장인 선우 경식 원장과는 일찍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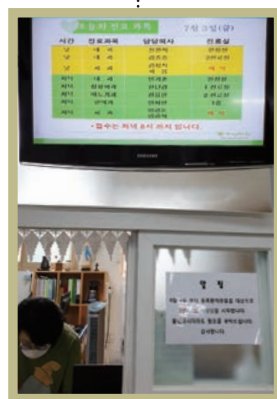
“1980년대 초반에 아일랜드계 골룸반회 신부님들이 관악구 신림10동 산동네에 공소인 ‘사랑의 집’을 열고 빈민들을 위한 특수사목을 하셨어요. 저는 1984년도부터 신부님들을 도와서 사랑의 집에서 도시빈민 탁아 일을 했었



윤 팀장은 “종이 접수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바꿨더니 환자분들이 모두들 좋아한다”며, “환자가 직접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라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료의사가 환자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동안 어떤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는지 등을 기록하는 의무기록지는 특히 본원과 같이 한 환자가 여러 과 진료를 받는 경우 적절한 약 처방 등을 위해 자세한 기록이 필요하다. 사진 아래 오른쪽은 그 날의 낮진료과 밤진료의 진료과목과 담당의사 및 진료실을 표시한 의무기록실 앞 모니터.



지요. 당시 선우 원장님이 가톨릭의대 학생회 의료봉사팀과 함께 사랑의 집에서 주말 무료 진료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10년 정도 탁아 일을 하다 재개발로 그만 두게 되자 아는 수녀의 소개로 요셉의원에 합류하게 됐다. 처음에는 환자 접수대장을 겸한 의무기록지 정리를 하다 그 후 접수 담당자를 새로 뽑으며 후원금 관리 등 병원 살림까지 맡기도 했다.

당시 의무기록이나 병원 살림 얘기를 들으면 꼼꼼하고 절약 정신이 투철한 선우 원장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선우 원장은 원래 필체가 좋은데다 환자 의무기록지도 또박 또박 알아보기 쉽게 기록했다. 그러면서 아는 후배 의사들에게도 ‘의무기록은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정자로 써야 한다’는 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음주 환자는 절대 사절입니다”

본원 앞에는 진료 시작 전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다 진료가 시작되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 이럴 때면 환자 접수를 하는 의무기록팀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윤 팀장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속한 진료 진행을 위해서도 봉사자가 필요하다.

의무기록팀에는 그동안 15명의 봉사자가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다섯 명으로 줄어, 각각 월요일 낮과 밤진료, 화요일과 금요일 낮진료 때 봉사를 하고 있다. 윤 팀장은 “현장 체험나온 신학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고 털어놨다.

2018년 봄부터 의무기록팀 봉사를 시작한 심연주(로사) 봉사자는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진료 봉사를 하고 있으나 여유가 생긴 기간 동안 월요일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심 봉사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접하다 보니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시간이 나는대로 작으나마 꾸준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접수를 맡고 있는 봉사자들도 마음을 다해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으나, 환자층이 다양하다 보니 간혹 예기치 않은 잡음이 생기기도 한다.

“요즘은 크게 줄었으나 술이 깨지 않은 채 오는 환자가 가장 문제이고, 분노 조절이 잘 안돼 화를 내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다른 병원에 갔던 걸 착각하고 우기는 환자, 성희롱에 가까운 언행 등 다양하지요. 그럴 때 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데, 환자가 밀릴 때는 일 처리 때문에 간혹 쌀쌀 맞거나 통명스럽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늘 환자들 편이지요.”

‘환자와의 공감’과 ‘양질의 진료’ 위해

의무기록팀의 당면 과제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온 의무기록 완전 전산화다. 최근 이비인후과와 안과, 통증클리닉에서는 종이 차트를 안 쓰기로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으나, 다른 과에서는 전자차트와 종이 차트를 병용하고 있다.

신 의무원장은 “본원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가 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진료 중간 중간에 키보드나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것이 더 빨라서 당분간은 병용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그동안 환자와 얼굴을 맞대고 교감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으로 ‘환자와의 공감’과 ‘양질의 진료’를 꼽았다. “기분이 언짢은 상태로 진료실로 가면 본인은 물론 의료진에게도 누가 될 수 있어 환자와 대화를 하며 그 입장에서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또 “평소 가난한 환자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며, “무료 병원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넘어, 좀 더 정성이 들어가고 환자들이 최적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과 봉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2020.05~2020.06

코로나19 사태  필리핀 현지통신

필리핀, 하루 2000명 이상 새 감염자 나와

필리핀에서는 지금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 감염자 수는 6만 명에 이르며 하루에도 2000명 이상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필리핀 요셉의원이 있는 말라본 지역도 감염자가 200명 넘게 나왔다. 그로 인해 7월부터 다시 진료를 시작하려 했다가 계획을 바꿔 진료 재개를 일단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처방전을 가져오면 약은 무료로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보다 생계가 더 걱정인 지역 사람들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필리핀 정부는 봉쇄조치를 오히려 완화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도 걱정이지만 사람들의 생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도시 봉쇄조치로 공장과 건설, 교통 등이 통제됨에 따라 많은 수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봉쇄 완화 조치로 일자리를 다시 찾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요셉의원은 현재 21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무료급식을 원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7월부터 숫자를 270명까지

점 차 늘려 나가고

있다. 예전에는 지역의 급식소에 아이들이 찾아와 그곳에서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공부와 놀이도 함께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외출이 금지돼 엄마나 친지들이 급식소에 찾아와 음식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 지원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서울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가 보내준 후원금으로 이곳 칼로칸 교구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나눠주었다. 한 가정에 계란 30개와 분말우유 한 팩 그리고 쌀 10kg을 각 본당을 통해 3000 가정에 전달했다.

후원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고마워하며,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역 경찰들이 매번 배급 때마다 필리핀 요셉의원에 와서 도와주고 있다.



산 피앙코 급식소에서 배식하는 장면(사진 위 왼쪽). 서울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에서 후원한 식료품을 배급하고 있다(사진 아래).





복음 묵상

‘작은 씨앗’에서 찾는 선의 의미



장경근 안드레아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지난 주(연중 15주) 복음은 이곳에서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묵상 거리를 던져 주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다...” 뭔가 어색하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더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 같다. 그러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라고 표현한다.

또한 씨 뿌리는 사람은 당연히 비옥하고 질 좋은 땅에 씨를 뿌릴 것이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 씨들은 어떤 것은 길바닥에 뿌려지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전부 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겠지만 말이다.

이 비유에서 씨앗은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선’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씨뿌리는 사람’은 바로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이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한 선한 의지로 세상에 선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씨만 뿌리며 나머지는 농부가 할 일이다. 우리는 씨들이 전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교육받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시간, 돈, 능력..등을 사용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길 바라며, ‘손해’는 곧 패배, ‘낭비’는 곧 ‘가치 없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

씨를 뿌리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모두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선이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뿌듯함의 만족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가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보면서...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보면서... 선행이 효율적이지 않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결국 유희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다.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세상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나를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계속될까?” 결국 원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라지 씨를 뿌린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밭까지 같이 뽑는 경우가 있다. 효과 없음을 따지면서 ‘선’까지 뽑아버리는 경우이다.

그러나 요즘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말하면 ‘가치는 효율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가 뿌리는 이 작은 씨앗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이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며 만족해하고 싶지만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뿐이다. 몇 십 년 동안 보상을 원하며 살아온 인생이니 그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는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이르신다. ‘아쉬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작은 씨앗을 뿌리며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심을 청해 본다

+ 2020년 5~6월 신규 후원회원 명단(총 11명)

♥ 김경훈1 ♥ 김경훈2 ♥ 김양숙 ♥ 김주성 ♥ 김효정
♥ 유영규 ♥ 이복규 ♥ 임자영 ♥ 정명화 ♥ 하병진 ♥ 함불안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ppt://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2020년 5~6월 신규 후원단체

♥ 방사선사 성빈센트병원 분회 및 김진수 외 지인 등 53명

+ 2020년 5~6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코로나19로 진료 중단, 약 처방(155명)만 진행
♥ 급식 8,056명

+ 개원 후 진료 및 급식통계 (2020년 6월 현재)

♥ 진료 80,625명 ♥ 급식 315,300명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4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쪽방촌 향기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요즘 ‘소확행(小確幸)’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셉의원은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예수님의 마당입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이곳에서 행복의 마당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돈

본원 치과의료봉사자

사람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을 가운데로 되돌리려는 ‘항상성(恒常性)’이란 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세계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자연스런 작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항상성이 우리들에게 이롭게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부정적인 면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매번 웃으면서 밝게만 살고 싶지만 이 역시도 항상성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때 불타오르던 신앙이 슬그머니 식어버리는 현상도 항상성이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알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연현상이라면 그것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난치성 질병을 통해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세월이 지나고 제 건강을 회복한 후로 슬며시 떠나시려 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식어가는 것을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나태함과 게으름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 안에 영원히 모시려는 간절함을 청하고 싶습니다. 단단하지 못한 신앙이지만 저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제가 선택한 것은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매일 매일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 나뭇의

노력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신 말씀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로 들리지만 내 가족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으로 가득찰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를 따라야만 후일 천국의 면접관에게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요셉의원이란 곳은 저에게 고마운 장소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일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요셉의원 문을 들어설 때마다 저는 다짐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나보다 많이 어려운 분들 말씀을 끝까지 들겠습니다. 제 무심한 한 마디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돌보아 주십시오!”

요즘 ‘소확행(小確幸)’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셉의원은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예수님의 마당입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이곳에서 행복의 마당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흐려지는 신앙을 애꿎은 항상성이란 현상으로 핑계를 대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이 과거로 되돌아감을 방지하는 길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를 소중하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려운 분들을 내 가족만큼이나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요셉의원 소식

(주)도서출판 성안당, 도서 30여권 기증



북 미디어그룹 (주)도서출판 성안당에서 지난 6월 18일 본원 환자와 봉사자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에 이용자들의 지적 지평을 넓히고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영문법 콘서트' 외 30여권의 서적을 기증했다. 이종춘 성안당 회장은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꾸준히 책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얼마 전부터 저자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는 '인세형 후원'도 요셉의원을 찾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서적과 함께 인문교양, 경제경영, IT, 초·중·고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는 성안당은 현재 스테디셀러인 '영문법 콘서트' 저자 박상효씨와 계약을 맺고 저자 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원에 기부하는 새로운 후원 방식을 채택해 출판계와 저술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안당 측은 6월에 새로 출간된 '영단어 콘서트' 책자 인세도 같은 방식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하계동 성당, 의류 25상자 기증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성당(주임: 김웅태 신부) 신자들이 의류 모으기 행사를 벌여 지난 7월 8일 의류와 신발 등을 포함해 25상자를 본원

에 기증했다. 성당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류가 모여 이중 일부를 교구 사목국에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요셉의원에 기증했다"며, "주보

에 이 사실을 알리자 신자들이 보람 있는 일을 했으며 모두들 기뻐했다"고 전했다.



선우 원장 동생 효식씨 부부 유품 기증

본원 선우 경식 초대원장의 막내 동생인 선우 효식 씨 부부(미국 거주)가 지난 2018년 11월 20일쯤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서 큰 여



행가방(사진)에 선우 원장의 유품을 담아 본원 원장신부를 통해 기증했다. 조 원장신부는 "유품 기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백건우 신학생 현장체험 마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본원에서 사회복지 현장체험을 한 천주교 전주교구 백건우 신학생(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7월 8일 미사에서 종로 인사를 하고 소감을 밝혔다. 백건우 신학생은 "지난 두 달 동안 너무 많이 배웠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앞으로 요셉의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주)메디엔젤, 물비누 지속 후원

수년 전부터 본원에 매달 물비누 20개들이 한 박스를 후원하고 있는 (주)메디엔젤이 이번에 물비누의 상표를 SNL salt&light로 변경하고 용기색도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어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을 기증했다.





봉사자 코너

본원 전기시설 도우미 이근철 봉사자

“몸 못 움직일 때까지 봉사합니다”



“선우 경식 원장님을 자주 뵈 기회는 없었으나 요셉의원 일을 거들면서부터 그 분 뜻을 알고 평생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본원에서 전기 배선이나 배관, 각종 등기구 달기 등 전기 관련 업무를 돕고 있는 이근철(71) 봉사자는 본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

한 지 올해로 22년째가 된다. 그동안 3층의 경당 전기공사를 비롯해 진료실이나 진료 장비의 전기 공급을 위한 작업, ‘요셉의 집’ 등기구 재설치 작업 등을 수행했고, 본원에 전기 관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 조치를 해주는 ‘열심 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다.

“예전 언젠가 경기도 안성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원에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하던 일 제쳐놓고 쫓아갔더니 간단한 스위치 불량이었더군요.”

이 봉사자는 “전기 상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전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이었다”며 웃었다.

지금은 영선반에 상근 봉사자 한 분이 상주하면서 간단한 전기 문제도 처리하고 있다.

이근철 봉사자는 23세 때부터 전기공사 일을 배워 한 때 개인적으로 전기공사 사업도 하다 현재는 한 전기용역회사에 몸담고 있다. 본원에 전기 관련 일이 있으면 업무가 없는 날이나 회사 일이 끝난 뒤 저녁 때라도 달려 조치를 취해 준다.

이 봉사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천주교 입교와 관계가 깊은 듯하다. 1993년 영등포 성당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그는 이듬해부터 영등포 무료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에 배식봉사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는 마침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성당 교우의 소개로 교정사목을 하시던 김종국 신부님을 따라 봉사를 다니다 김 신부님이 ‘토마스의 집’을 여시면서 배식봉사를 하게 됐지요. 그 즈음에 토마스의 집에 자주 들르시던 요셉의원 선우 경식 원장님을 알게 돼 1998년쯤부터 요셉의원 봉사도 겸하게 됐습니다.”

선우 원장은 처음에 그가 허름한 차림을 하고 있어 밥 먹으러 온 노숙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이 봉사자가 ‘요셉의원에 전기 문제가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제안하면서 인연이 맺어졌다. 선우 원장은 이따금 외부 전기 공사도 부탁했다. 그 덕분에 서울 하월곡동 성가복지병원의 호스피스 병실 누전 방지 공사를 도와주고, 제천까지 가서 전기공사를 해주는 등 여러 차례 ‘재능기부’를 했다.

“봉사를 하고 나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봉사 초기에는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돈도 몇 푼 쥐어주고, 겨울에는 입고 나온 점퍼를 벗어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다른 봉사자들이 그렇게 하면 습관된다고 말리더군요.”

소속 본당에서 구역장 경력 10여 년에 레지오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봉사자는 “당시에는 신앙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던 때문인지 개인적인 신비체험도 했다”고 술회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1998년 IMF 사태가 터지면서 모두들 어려워 할 때, 이 봉사자는 오히려 일감이 더 많아져 형편이 한층 나아졌다고 말했다.

“전에는 제 일을 하는 시간보다 봉사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IMF 이후에는 봉사 시간보다 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셉의원에 후원도 하게 됐습니다.”

굳은 신앙을 바탕으로 봉사에 헌신하던 그에게도 한 가지 시련이 닥쳤다. 2011년 2월 초음파 검사에서 콩알만 하던 간 종양이 6개월 뒤 밤알만큼 커지면서 그해 9월에 간암 수술을 받은 것.

“평소 술을 즐겨 마신 게 화근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전에 생활에 여유를 주신 것이나, 질병을 주신 것이나 모두 감사의 목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목주기도도 올리면서 건강체를 회복한 그는 요즈음도 틈틈이 본원과 토마스의 집을 오가며 봉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환자 스토리

결핵 딛고 자활 위해 노력하는 최성용 씨

“힘 있을 때 수급 안 받고 열심히 일해야지요”



누구든 ‘공짜’로 주는 돈을 마다할 사람은 별로 없다. 최근의 재난지원금도 그렇거니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생계급여나 주거·의료급여도 가능하면 타보려고 노력한다.

지난해 가을 결핵 판정을 받고 잠시 노동판을 떠나있는 최성용 씨(60)는 이런 ‘욕심’과는 거리가 먼 듯

보였다. 정부의 생계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해서 내 손으로 먹고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씨 자신은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엄정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도 아니다. 그저 남에게 기대지 않고 피해도 안 주고 조용히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다.

“물론 남과 다툰 적이야 있지만 주먹질 하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조용히 타이르고 지나치다 싶으면 제가 자리를 피하지요.”

본원 치과 환자로 3주 전 위 아래 틀니를 장착한 최 씨는 “이가 없어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다 틀니를 하고 훨씬 좋아졌다”며 고마워했다. 충북 충주가 고향인 그는 집안이 가난해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기도 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등 팍팍한 삶을 살았다.

4남매 중 장남인 최 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7세 때 돈을 벌러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신문 배달 등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20대 초반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 구두골목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됐다.

“가죽을 디자인해 잘라 본드로 붙이고 미싱으로 박아서 대략적인 구두 형태를 만들면 밑창을 하는 이들이 바깥 구두 창을 붙이고 안창을 넣어서 한 켤레를 완성하게 됩니다. 경기가 괜찮을 때는 하루에 20~30 켤레씩 만들었어요.”

20년을 구두 일을 하면서 월급도 어느 정도 받았다. 그러나 술을 즐겨 들다 보니 별로 돈도 못 모으고 결혼 시기도 놓쳤다. 사실 술 이외에는 별다른 소일거리가 없었다. 최 씨는 “당시도 일 끝나면 모여서 술들을 많이 마셨는데, 막노동을 하는 이들이나 노숙인들을 보면 안주도 없이 그냥 소주만 들이마셔 속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구두 수출 물량도 감소하고, 사람들이 운동화 같은 간편화를 많이 신으며 일감이 줄자 최 씨도 구두 일을 그만두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노동판에 뛰어들어 주로 건설현장에서 벽돌 등 자재를 나르고 쌓고 하는 일을 50대 중반까지 10년 정도 계속했다.

“나이가 들다 보니 50대 중반부터는 몸이 예전같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거운 자재 나르는 일 대신 청소같은 가벼운 일을 했어요,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일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힘들어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노동 하는 곳에도 조선족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 나라 사람은 60세가 넘으면 나이 들었다고 안 쓰는데 조선족이나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힘든 일도 잘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거리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가던 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밥은 잘 안 먹고, 막걸리를 하루에 다섯 병 정도 마시고 추운 곳에서 자서 그런지 몸에 힘이 없었다. 거의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가 돼서야 진찰 받으러 서울의료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결핵. 최 씨는 결핵환자들이 머무는 서울역 부근 ‘미소꿈터’로 거처를 옮기고, 지금까지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약을 먹자 지금은 몸에서 결핵균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돼 공공근로도 하고 있다.

“저도 여건 상 수급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서울역 앞에는 몸이 불편해서 수급을 받는 이들이 많은데, 수급비 나오면 그 돈으로 술 사먹고 쓰러져 자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최 씨는 집안의 장남답게 명절 때면 고향에 홀로 계신 부

친을 찾아가고, 동생들과도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한다. 부친에게 결핵 얘기를 꺼내자 ‘건강 잘 챙기라는 잔소리’도 들었다. 비록 객지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해오지만, 가족들과 면면히 이어오는 끈이 그를 ‘주체적 개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또 다른 원천이 아닐까 싶다.



후원의 손길

재난지원금과 상품권 후원한 김성신·김필진 씨

“어려울 때 가난한 이들에게 더 관심 가져야죠”

‘코로나19 사태’가 끝 모르게 지속되는 가운데 후원 방법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정기후원자로 등록하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있으나, 재난지원금을 활용하거나 상품권 후원 같은 이색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도 있다.

서울 반포에 사는 김성신(첼리나) 후원자는 지난 6월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70만원으로 햇반과 김밥, 참치 통조림을 구입해 가난한 노숙인과 쪽방촌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본원에 보내왔다. 김 후원자는 “3년 전인가 반포4동 본당에 부임했다 필리핀요셉의원으로 가신 장경근 신부님이 후원행사 차 본당을 방문했을 때 처음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이번에도 필리핀요셉의원을 생각하다 번거로울 것 같아 요셉의원 어려운 분들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처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김 후원자는 남편과 상의해 지원금을 받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자고 합

의했다고 한다. 김 후원자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 가난한 분들에게 작지만 밥 한 끼라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말에는 김필진(베로니카) 후원자가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50장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직접 본원에 전달했다. 김 후원자는 “다니는 회사에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라고 일종의 보너스 형태로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 제 몫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받은 것이니 돌려드리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원자는 정기후원자는 아니나 지난 2017년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김 후원자는 “요셉의원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니 기회가 닿는대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본원에서는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 매주 실시해 오던 ‘목요나눔’을 중단하고, 햇반이나 빵, 두유, 통조림, 의약품 등을 준비해 한 달에 몇 차례씩 쪽방촌 300가구 정도를 방문해 나눔을 하고 있다. 이번에 두 후원자가 기증한 식품과, 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도 ‘쪽방 나눔’에 활용될 예정이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0년 5월~6월)

♥ 강민준 ♥ 강희강 ♥ 고택균 ♥ 구은정 ♥ 김광윤 ♥ 김미영 ♥ 김송연 ♥ 김수민 ♥ 김수연 ♥ 김영숙 ♥ 김영식 ♥ 김예원
♥ 김원경 ♥ 김원경 ♥ 김진현 ♥ 김태원 ♥ 김필수 ♥ 김향숙 ♥ 김현두 ♥ 김현옥 ♥ 김효준 ♥ 김효진 ♥ 나복래 ♥ 나충렬
♥ 무송뱅크 ♥ 문승환 ♥ 문영남 ♥ 박라지 ♥ 박만득 ♥ 박성희 ♥ 박수경 ♥ 박수형 ♥ 박인경 ♥ 박태성 ♥ 배현순





♥ 백건우신학생 ♥ 백주열 ♥ 변수진 ♥ 서재수 ♥ 송수진 ♥ 송진희 ♥ 신성균
♥ 신숙경 ♥ 신유라 ♥ 안수현 ♥ 안혜선 ♥ 오승연 ♥ 오승열 ♥ 유승범 ♥ 유창남
♥ 윤희수 ♥ 윤희영 ♥ 이경환 ♥ 이봉현 ♥ 이숙안 ♥ 이영수 ♥ 이우진 ♥ 이유헌
♥ 이유진 ♥ 이재현 ♥ 이정훈 ♥ 이태규 ♥ 이한결 ♥ 이한철 ♥ 임효선 ♥ 장수현
♥ 장영아 ♥ 전은환 ♥ 전주현 ♥ 정요한 ♥ 정혜정 ♥ 조면행 ♥ 조신섭 ♥ 조하룡
♥ 조현민 ♥ 차세용 · 차윤영 ♥ 천만성 ♥ 천재호 ♥ 최경운 ♥ 최성식 ♥ 최승효
♥ 최정임 ♥ 최효자 ♥ 한주연 ♥ 허미영 ♥ 홍순원 ♥ 효찬중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0년 5월~6월)

♥ (주)금촌 ♥ (주)룽고 ♥ (주)이수 ♥ (주)청양통상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0년 5월~6월)

♥ 김경필 : 마늘 1상자 ♥ 김성신 : 햇반 34개, 참치 1상자, 국밥 2상자 ♥ 김용태 신
부(작은 예수 수도회,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 쌀 160kg ♥ 꿀벌유치원 :
쌀 40kg ♥ 대전교구중구지구 신학생 일동 : 주스 1상자 ♥ 이레우리밀 : 빵 12상자
♥ (주)올곧은 컴퍼니 : 두유 2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0년 5월~6월)

♥ 가톨릭대성신교정 윤신부 외 2인 : 옷 10상자, 신발 2상자, 가방 2개 ♥ 고은주 옷 1
상자 ♥ 구교문 : 옷 2점 ♥ 김영애 : 옷 1상자 ♥ 김진 : 옷 1상자 ♥ 노미옥 : 옷
2상자 ♥ 돈암동성당 주경수 신부 : 옷 1상자 ♥ 문영애 : 옷 1상자 ♥ 박말복 목사 :
여성의류 1상자 ♥ 박은경 : 옷 1상자 ♥ 박찬순 후원회장 : 굴 3상자 ♥ 신우전 : 옷 1
상자 ♥ 신현자 : 신발 2상자 ♥ 오준수 : 옷 1상자 ♥ 유현아 옷 1상자 ♥ 이미란 : 운
동화 1상자 ♥ 이지민 : 옷 1상자 ♥ 익명 : 옷 2상자 ♥ 최윤미 : 옷 2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0년 5월~6월)

♥ 김정유 : 파스 1상자 ♥ 비타민 엔젤스 : 나눔 비타민 ♥ 온누리약국복지회 : 카
세롤 외 2종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5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0년 5월~6월)

♥ (주)메디엔젤 : 소독제 1상자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나오신 분

- 의사 : 조현자(영상의학과)
함영글(치과)
- 약사 : 명정에 정지인
- 방사선사 : 이세호신부 조준영
- 임상병리사 : 김다정 신영미 정다희
- 신학생 현장체험 :
-6월 15일~9월 30일
서울대교구 강상훈(토마스 아퀴나스)
노대철(대철 베드로)
-6월 15일~12월 15일
제주교구 김석우(스테파노)
- 일반봉사 : 김미영 이한나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 안산빈센트의원
- ♥ 이현주(노인 어린이시절)
- ♥ 쪽방나눔(310 가구)
- ♥ 카자흐스탄(의료봉사)
- ♥ 토마스의 집
- ♥ 한울타리공동체
- ♥ 효경원(아동복지기관)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0년 5월	952명
2020년 6월	1,219명



개원 이후 총 진료 인원(2020년 6월 말 현재)

698,100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여라.
병자 위문을 게을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사랑을 받으리라.”

| 집회서 7, 34~35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코올 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은행에 신청하기 신분증과 도장·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KEB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josephclinic@daum.net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